



무슨 것이지?
대포를 쏘려는 건가?

뭐야?! 같은 편도
몰라 봐?!
왜 대포를 쏘고
그래?!



특대
특수
키스트
KIST의
비밀을 밝혀라

8 생체재료
연구센터 下

아이고~!
대포를 맞아서 죽느니
그냥 바다로 빠지는 게 낫겠다!

글 김경우 기자·그림 김준

지난 줄거리 : 스틸로의 이번 임무는 생체재료연구센터에서 인공 장기에 대한 정보를 캐오는 것. 하지만 한발 앞서 붉은별 군단이 바이오 인공 판막을 훔쳐가고, 스틸로는 우주선에 매달려 붉은별 군단의 기지에 가게 된다.



깜짝이야!



웅.. 이제 안 쏘네.
두목님이 임무를 성공한
나를 축하해 주려고
장난을 치신 건가 보다.
개구쟁이 두목님~♥



에똘똘! 아이고, 짜!
조금만 버텼으면
편하게 도착했을 텐데...
수영해서 가야겠군.



두목님, 기뻐하십시오.
제가 임무를
성공했습니다.



아니! 인공 심장
기술을 빼 오랬더니
저 바보가 뭘
가져온 거야!



자~,
다들 환영해 주세요.
임무를 성공한 멧쟁이
*RS-8호가
도착했습니다.

*RS : red star



너 도대체 뭘
가져온 거냐?
그것만 있으면 로봇이
살아 움직인다는 게
확실한 거냐?

네! 제가 한국에서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걸로 어느 아픈
환자 심장을 치료
한다고 했어요.

짜잔~



흠...
일단 믿어 보지!
사이보그를
개발하고 있는
무헤드 박사를 불러와!
어서 로봇을
완성시키자!

넵!





후훗! 과연 당신들이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바이오 인공 장기의 핵심은 바로 생체 거부 반응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야. 그래서 우리 연구센터에서는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공 장기를 개발하고 있지. 예를 들어 화상을 심하게 입은 환자는 자신의 피부 세포를 인큐베이터에서 배양시켜 이식할 수 있어. 또 관절이 아픈 사람에게는 뼈와 혈액을 만드는 골수에서 연골을 배양시켜 관절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어. 나영이에게 이식한 바이오 심장 판막도 마찬가지지. 자신의 세포를 배양해 이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고, 영구적으로 이상이 안 생기는 거라구.

VS

하하하. 그 정도는 나도 다 알고 있다구! 내가 누군가? 바로 붉은 별 최고의 과학자 무헤드 님이란 말씀! 우리의 목적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바로 미래형 사이보그의 개발이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본인한테만 효과가 있는 그런 장기가 아니야. 그리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일 따위는 관심도 없다구! 나의 목표는 어떤 장기라도 만들어 낼 수 있고, 나아가 복제를 성공시킬 수 있는 기술이지. 만약에 나 같은 천재가 많이 복제된다면 세상은 똑똑해지지 않을까? 어쨌든 곧 우주는 우리 손아귀에 들어올 것이다! 음 화하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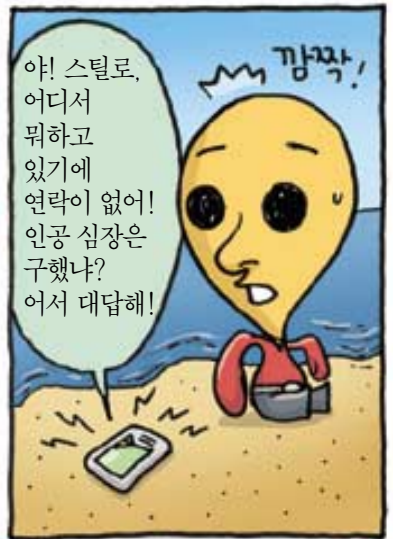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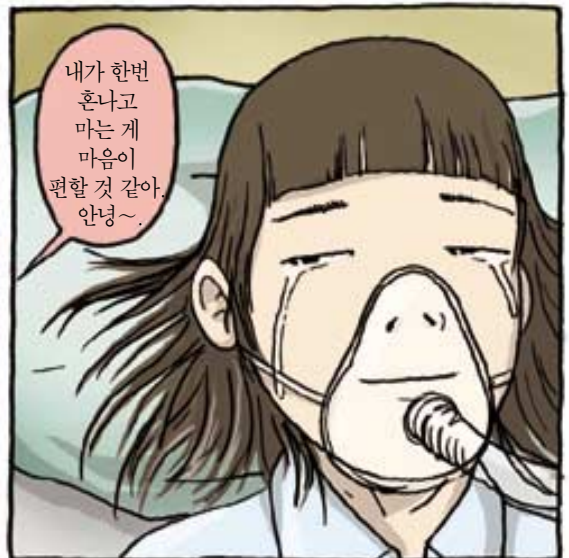
붉은별 군단의 과학자 '무헤드' 박사













으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왜 여기 있지?!



방금 착한 외계인이 돌려주러 왔었어요. 나보고 어서 나오래요.



아! 저... 정말 다행이구나! 이제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어... 훌훌!



간호원! 어서 수술 준비해 주세요!

네!



나영이가 몸이 허약해져서 헛것이 보이냐 봐요. 서둘러야겠어.



훠훠...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임무에 실패해서 혼은 나겠지만 새해부터 착한 일을 했더니 기분은 좋구나~!



다음부터 잘 하면 되지, 뭐~!

마음 착한 스틸로, 언젠가 꼭 복 받을 거~!

생체재료연구센터편 끝